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최 형 성¹⁾

혜천대학 아동컴퓨터보육과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3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4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의 하위 영역인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은 양육효능감 모든 하위영역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가장 유의한 변인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었고, 아동의 기질도 유의한 변인이었다. 사회적 지원의 하위 영역인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은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특히 남편의 협력은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기질, 양육효능감

1) 교신저자 : 최형성, 혜천대학 아동컴퓨터보육과 전임강사, E-mail: hyungsung@hanmail.net

2)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I. 서 론

양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은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예측케 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이라고 한다(Bugental, Blue, & Cruzcosa, 1989; 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해 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양육환경을 만드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높은 양육효능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자녀의 바람직한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발달을 이끄는 경향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et al., 1999; Teti & Gelfand, 1991). 반면, 낮은 양육효능감은 강압적이거나 무기력한 양육행동뿐 아니라 아동학대와도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인해 최근 연구들은 양육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꾀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Brookman-Frazee, 2004; Martin & Sanders, 2003).

Bandura(1982)의 자아효능감 개념에서 시작된 양육효능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변인들을 통합할 때 어떤 경로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까지 연구되지 못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스트

레스 그리고 아동의 기질을 중심으로 이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e.g., Cutrona & Troutman, 1986;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Teti & Gelfand, 1991).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Cutrona & Troutman, 1986; Goldberg, 1977; Mash & Johnston, 1983; Teti & Gelfand, 1991). 기질이란 행동양식으로서 행위가 수행되는 일관된 패턴을 의미하며, 같은 동기와 능력을 가진 유기체라도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가에 따라 기질의 개인차가 발생하게 된다(Thomas & Chess, 1977).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유아는 양육 행동 수행의 많은 부분을 좌절시키므로 까다로운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까다로운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부정적인 관계는 Cutrona와 Troutman(1986), Goldberg(1977),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연령 증가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더욱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음(Mash & Johnston, 1983)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는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유아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다.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대체로 일관된 연구결과들(Cutrona & Troutman, 1986; Shapiro & Mangelsdorf, 1994; Teti & Gelfand, 1991)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과의 의미있는 관련성은 자아효

능감이 의미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사회적 설득(social persuasion)과 모델링에 민감하다는 Bandura(1982)의 전제를 지지하는 일이기도 하다(Teti & Gelfand, 1991). 그러나 두 변인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Levi-Shiff et al., 1998)도 있어 두 변인간의 관계 설명에 신중을 기하게 한다. 또한 이에 관한 연구 역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유아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다.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부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Kotichick et al, 1997; Dumka et al, 1996; 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ieckmann, 1988). Kotichick과 동료들(1997)은 부모의 질병, 경제적 곤란, 대인 간 갈등과 같은 가족의 스트레스가 효율적인 양육에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Dumka와 동료들(1996)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경우 낮은 양육효능감을 갖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Levy-Shiff와 동료들(1998)은 임신 중에 겪는 스트레스가 출산 후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이 세 변인들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주목하여 왔다. 그러나 적으나마 이 변인들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에 의해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중재할 가능성에 대해 예측해 보게 된다. Crockenberg(1981)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은 짜증을 잘 내는 아기의 어머니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고 한다. 또한 사회

적 지원은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매우 결정적인 변인이었으며,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양육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음도 함께 보고하였다. Crinic과 동료들(1983)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어머니의 양육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유우영과 이숙(1998)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직·간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동시에 사회적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매우 드문 현실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는 또래와의 활동량과 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시기로서 부모는 자녀양육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아동 양육의 일차 책임자이기에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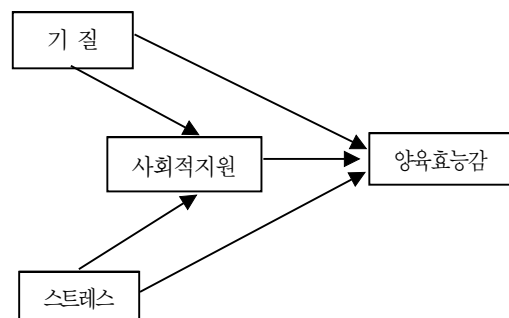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기본 모형

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연구하여 왔다 (Dorsey et al., 1999; Mash & Johnston, 1983; Elder et al., 199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육효능감 신장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떠한 상관에 있는가?
2.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3개구의 3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416명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여아가 52.6%, 남아가 47.4%이며, 아동의 연령은 11세가 47.4%, 12세가 35.8%인 것으로 나

타났다. 아동의 출생 순위는 첫째가 53.7%, 형제 수는 두 명인 경우가 69.9%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6세에서 40세 사이가 54.8%, 교육 수준은 고졸인 경우가 59.2%, 직업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54.3%이었다. 조사대상 가정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00만원에서 249만원 사이인 경우(23.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37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등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75~.86, 하위척도의 반분 신뢰도는 .71~.84, 그리고 타당도는 .65~.86이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최형성·정옥분, 2001). 총 점수는 37점에서 1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5,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7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신숙재(1997)가 제작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숙재(1997)의 척도는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등 2개의 요인, 2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원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주위의 도움은 .91, 남편의 협력은 .93,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진현희(1994)가 사용한 가족 스트레스 척도를 진현희의 사전 동의를 얻어 다소 수정한 후 요인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0개 문항, 5개 하위요인-‘건강문제’, ‘남편의 직업 전환’,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곤란’, ‘자녀와의 갈등’-이 추출되었다. 4점 척도로 재구성된 척도는 총 점수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67-.88, 요인 타당도는 .67-.88이었다.

아동의 기질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이명숙(1994)이 변안한 ‘개정판 기질 차원 척도(DOTS-R)’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명숙(1994)의 척도를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 문항의 첫 부분인 ‘나는’ 을 ‘내 아이는’ 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차원별 기질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 활동 수준, 융통-경직성의 점수가 낮을수록,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 등의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기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활동수준과 융통-경직성 차원에 해당되는 문항의 응답을 역코딩함으로써 기질에 대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기질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총점수는 34점에서 170점까지이다. 본 척도는 일반적 활동 수준, 접근-철회성, 융통-경직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 등 6개의 기질 차원, 34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기질 차원의 신뢰도는 .54에서 .79,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2001년 4월 23일에서 28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구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456명의 설문지 중 부실한 응답을 한 40명을 제외한 416명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비교하기 위해 백분율을, 각 변인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스트레스의 요인분석 과정에서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 제거시의 내적 합치도,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 χ^2 검증 및 Cramer's V를 통한 문항변별도를 산출하였다. 요인분석과정에서 공통요인분석과 직각회전방법(varimax)을 실시하였다. 요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상관 분석(Pearson의 r), 단계적 분석방법(stepwise)에 의한 중다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구조방정식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 분석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 위해, 잔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정규분포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고,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변인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왜도(또는 편포도, skewness) 및 첨도(또는 용도, kurtosis)를 구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먼저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표 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65***
아동의 기질	.35***
어머니의 스트레스	-.18***

*** p<.001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평균 3.73(SD=.60), 사회적 지원은 평균 3.70(SD=.60), 스트레스의 평균은 2.06(SD=.07), 아동 기질의 평균은 2.76(SD=.25)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나머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산출하여 제시한 표 1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과 정적 상관, 어머니의 스트레스

표 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

하위영역	(1)	(2)	(3)	(4)	(5)
남편의 협력	.60***	.55***	.58***	.46***	.48***
주위의 도움	.39***	.42***	.43***	.43***	.36***
일반적 활동성	.08	-.02	.06	.16**	.05
접근 - 철회성	.22***	.26***	.23***	.18***	.23***
융통 - 경직성	.09	.10*	.11*	.12*	.08
기분	.22***	.24***	.27***	.21***	.29***
주의집중성	.21***	.11*	.19***	.17***	.06
지속성	.19***	.12*	.19***	.18***	.10*
건강문제	-.12*	-.08	-.10*	-.05	-.07
남편의 직업전환	-.14***	-.10*	-.09	-.05	-.06
남편과의 갈등	-.22***	-.16***	-.15**	-.12*	-.13**
경제적 곤란	-.18***	-.11*	-.17***	-.07	-.09
자녀와의 갈등	-.25***	-.15**	-.23***	-.16**	-.14**

(1) 전반적인 양육능력 (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학습지도 능력 (5) 훈육 능력

* p<.05, ** p<.01, *** p<.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각 하위영역별로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세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분석방법 (stepwise)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 위한 Durbin-Watson계수 산출 결과 1.94인 것으로 나타나 오차항 간에 체계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공선성의 존재여부 파악을 위해 허용도(Tolerance)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허용도의 값이 .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이상이면 공선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 허용도,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모두 .1이상, 10이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 모형의 독립변인들 간에는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잔차항들이 독립적이고 정규분포이므로 정상적인 중다회귀 분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인 분석 방법 (stepwise)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R^2 = 44.1\%$, $p < .001$).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 = 42.61\%$, $p < .001$).

각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의 하위 영역들을 독립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경우가 1.89에서 2.03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오차항 간에 체계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허용도, 분산팽창요인의 값 모두 .1이상,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회귀모형의 독립변인들 간에는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정상적인 중다 회귀 분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의 하위 영역에 대한 단

표 3. 단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중다 회귀 분석

예언변인	B	β	R^2 누적량	F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462	.600***	.4261	307.37***
어머니의 아동의 기질	.259	.138***	.4433	12.80***
adj- R^2			.4406	

*** $p < .001$

표 4.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의 하위 영역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과의 중다회귀 분석

	예언 변인	B	β	R ² 누적량	F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남편의 협력	.380	.478***	.3556	228.43***
	주위의 도움	.108	.153***	.3764	13.77***
	주의집중성	.115	.076*	.3863	6.63*
	자녀와의 갈등	-.057	-.071	.3919	3.80
	접근 - 철회성	.073	.085	.3953	2.30
adj - R ²				.3879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남편의 협력	.348	.436***	.3029	179.88***
	주위의 도움	.146	.210***	.3418	24.39***
	접근 - 철회성	.112	.089*	.3499	5.16*
adj - R ²				.3452	
의사소통 능력	남편의 협력	.326	.454***	.3369	210.62***
	주위의 도움	.135	.200***	.3754	25.43***
	지속성	.056	.032*	.3822	4.55*
	자녀와의 갈등	-.068	-.076	.3857	2.31
	남편과의 갈등	.051	.121	.3914	3.86
	접근 - 철회성	.066	.058	.3949	2.39
adj - R ²				.3859	
학습지도 능력	남편의 협력	.302	.325***	.2143	112.89***
	주위의 도움	.209	.263***	.2742	34.09***
	일반적 활동성	.190	.134***	.2960	12.80***
	접근 - 철회성	.103	.063	.3009	2.85
adj - R ²				.2941	
훈육 능력	남편의 협력	.323	.387***	.2340	126.46***
	주위의 도움	.111	.146***	.2589	13.88***
	기 분	.155	.110**	.2729	7.91**
adj - R ²				.2676	

* p<.05, ** p<.01, *** p<.001

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에서 보듯이 양육효능감 하위 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에 차이가 있었으나, 남편의 협력은 모든 양육효능감

하위 영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

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세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기본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모수의 계산 방법은 최대가능법, 일반화최소제곱법, 가중최소제곱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크기가 200이상이고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경우 최대가능법 추정량들이 점근적으로 대부분 불편(unbiased), 일치(consistence), 효율적(efficient)이라는 바람직한 특성 때문에 최대가능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최대가능법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측정치들의 예비평가로서 왜도와 첨도를 유용하게 사용한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대가능법을 이용한 모수의 계산이 가능하다(이기중, 1992).

본 연구의 기본 모형에서 사용한 4개의 변인들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들이 모두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수는 416표본으로 안정된 결과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표본수이다. 또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추정치의 왜곡은 무시할 만하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최대가능법을 사용해도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하여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였다.

기본 모형과 수정모형들의 합치도 평가

모형이 전반적으로 주어진 경험 자료에 잘 맞는지를 판단하게 해 주는 것이 합치도 분석

이다. 합치도 분석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카이 스퀘어(χ^2)이다. 그 외에도 기초 합치도 지수(Goodness-of Fit Index, GFI), 조정 합치도 지수(Adjusted Goodness-of Fit Index, AGFI), 표준 합치도 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표준 합치도 지수(Non Normed Fit Index, NNFI),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합치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χ^2 값과 함께 GFI, AGFI, NFI, NNFI, RMR 등을 모두 사용하였다. 카이 스퀘어(χ^2)는 모형을 자료에 적용시킬 때 모형이 얼마나 현실자료에 잘 맞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관찰된 카이스퀘어가 ‘모형이 잘 맞는다’는 가정하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률치(p-value)로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확률치가 .05를 넘으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구조방정식의 모형이 자료에 잘 맞는 적절한 모형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GFI는 이론 모형을 표본자료가 설명해주는 상대적인 변량, 공변량의 크기로서 0과 1사이에 있으며, .9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 AGFI는 자유도에 의해 조정된 GFI지수로서 대체로 GFI보다 작으며 .9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 NNFI는 나쁜 모델을 잘 기각하며 표본크기에 제일 영향을 안받는 좋은 합치도 지수 중 하나로서 0과 1사이에 있으며 드물게 1을 넘는 수도 있으나, 보통 .9보다 크면 잘 맞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NNFI가 1을 넘을 수 있는 반면, NFI는 반드시 0과 1사이에서만 존재하므로 ‘표준’이라는 접두사를 붙인다. 대개 그 값이 .9보다 크면 잘 맞는 또는 잘 부합되는 모델로 해석한다. RMR은 표본 자료에 의해 이론 변인을 설명할 수 없는 변량, 공변량의 크기로서 적

표 5 모형찾기 과정을 통해 나타난 합치도의 지수

	χ^2	df	p	Q	GFI	AGFI	NFI	NNFI	RMR
기본 모형	12.066	1	.001	12.066	.986	.859	.963	.790	.013
수정 모형 1	12.441	2	.002	6.220	.985	.927	.961	.901	.014
수정 모형 2	.375	1	.540	.375	1.000	.995	.999	1.012	.002
수정 모형 1:2	12.066	1							

을수록 좋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투입된 자료가 상관계수인 경우 .05이하이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기본 모형에 대한 카이스퀘어(χ^2), GFI, AGFI, NFI, NNFI, RMR의 값들이 모형과 자료가 그리 잘 맞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 모형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스트레스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으로 가는 경로 계수와 T값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비표준화 계수 -.015, 표준화 계수 -.023, $T = -.62$). 그러므로 수정 모형 1에서는 이 경로를 0으로 고정시켜 보았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 모형 1의 합치도 지수 중 AGFI, NFI, GFI, NNFI, RMR는 만족스러웠으나, 결정적으로 χ^2 의 확률값이 모형과 자료가 잘 맞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수정 모형 1에 대한 수정지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 간에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수정 지표는 추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각 관련 변인들간의 비추정된 관계의 추정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전반적인 모형 합치도(카이 스퀘어값의 감소)의 개선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카이스퀘어 값의 감소란 모형의 인정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수정 모형 1에 대한 수정지표에 의하면, 본 연구의 모형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의 관계를 자유모수화하면 전체 모형의 카이 스퀘어 값이 11.9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에 대한 지각은 서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정 모형 2에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간의 공변량 관계를 설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수정 모형 2의 카이 스퀘어(χ^2), GFI, AGFI, NFI, NNFI, RMR 등 모든 수정 모형 2의 결과들이 수정모형 2가 자료와 매우 잘 맞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 모형 1과 수정 모형 2를 비교하여 볼 때 수정 모형 2가 수정 모형 1에 비해 본 연구의 조사 자료가 월등히 더 잘 부합되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본 연구를 통해 찾아낸 수정 모형 2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모형의 검토

그림 2에서 보듯이 수정 모형 2의 모든 경로계수는 매우 유의한 경로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사회적 지원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이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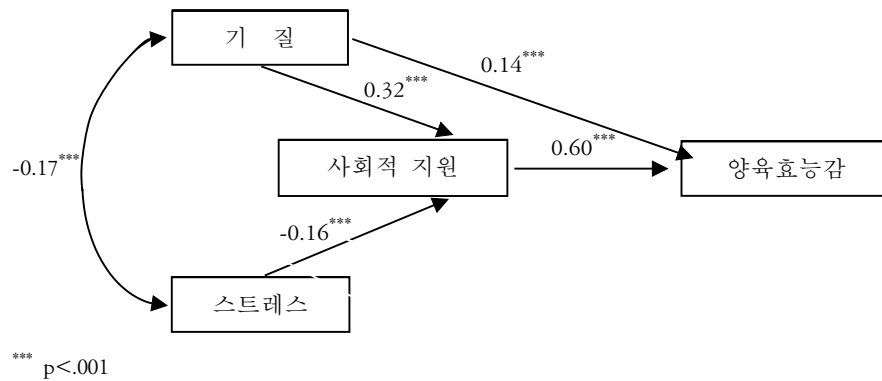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최종 수정 모형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 사이에는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이 높을수록 아동을 순하지 않은 기질, 즉 까다로운 기질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의 기질이 순할수록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정모형 2의 분석결과에 제시되어 있는 세 부적 지수로 수정모형 2의 합치도를 판단하고자 다중상관상승치(SMC)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4.3%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기초 자료 제공과 양육효능감 신장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아동의 기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 양육에 관한 정보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것이 높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과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Levi-Shiff와 그 동료들(1998)의 연구와는 상반되지만, 두 변인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언급한 Cutrona와 Troutman(1986), Teti와 Gelfand(1991), 신숙재(1997) 등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아동의 기질과 양육효능감이 정적인 상관관계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기질이 순할

수록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고,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양육 행동의 대부분을 좌절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Cutrona와 Troutman(1986), Goldberg(1977), Mash와 Johnston(1983), Teti와 Gelfand(1991)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부적 관계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높은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낮은 양육능력 지각과 관련성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해 주는 것이다.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만큼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흔들릴 확률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Kotchick와 그 동료들(1997), Levy-Shiff와 그 동료들(1998), Dumka와 그 동료들(1996), Scheel과 그 동료들(1998) 등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고한 바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 하위영역들의 상관을 분석하여 본 결과, 대체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의 경우, 하위영역 모두에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편의 협력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과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누가 제공하는 사

회적 지원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남편에게서 받는 지원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한 Shapiro와 Mangelsdorf(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남편의 협력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자녀의 양육이란 다른 누구보다도 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일이며 부부 공동의 일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남편의 협력이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동의 기질의 하위영역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특히 접근-철회성과 기분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의 기질의 하위영역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이나 새로운 일을 접할 때 자녀가 회피하지 않고 이를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하위영역과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특히 남편과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과 매우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없기에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는 어렵다. 다만, 남편과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이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양육이라는 것이 어머니와 자녀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자녀와의 갈등이 양육효능감과 상관이 있는 요인이며, 남편의 협력이 양

육효능감과 매우 높은 상관이 있듯이, 남편과의 갈등 또한 양육효능감과 상관이 있는 요인임을 생각해 보게 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었으며, 아동의 기질 역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이 어머니가 양육을 행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몸이 지쳐있는 어머니가 잠시 쉴 수 있도록 아이를 잠시라도 돌보아 준다면 휴식을 통해 몸을 회복한 어머니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만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도록 조언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원이 양육에, 특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인간의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구조 방정식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섯째’ 논의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셋째’ 논의 부분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하위 영역에 영

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하위 영역들을 검토하여 본 결과는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변인들 중에서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이었으며, 남편의 협력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지원이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 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원체계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Brunelli, Wasserman, Rauh, Alvarado & Caraballo, 1995; Unger & Wasserman, 1988; Simons, Lorenz, Wu & Conger, 199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Belsky(1984)에 따르면 남편의 협력은 좋은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화로운 부부관계는 좋은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통해 좋은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한 많은 남편의 협력이 어머니의 효율적인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다섯째,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한 결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하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원은 양육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Crockenberg(1981), Crinic과 동료들(1983), 유우영과 이숙(1998)의 연구 결과를 통해 유추하였고 본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한 것이다.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가 간접적인 형태로 여전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라 하겠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어머니라도 사회적 지원이 많다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아동의 기질이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까다로운 아동의 기질을 가진 아동에게 효율적인 양육을 수행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원이 기질과 양육효능 사이를 매개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Teti와 Gelfand(1991)의 제언을 입증하여 주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논의는 이미 전술한 바 있으므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이에 관한 논의는 피하고자 한다.

아동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의 기질은 양육의 차원과 관련된 영역이므로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양육의 차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이므로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변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스트레스

가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4.3%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에 위 결과와 대비한 논의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는 후속연구들에 의해 계속 밝혀 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연구자의 견해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44.3%라고 하는 비율은 매우 큰 비율이라고 생각되므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자아형성과 심리적 안녕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과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주목받게 될 변인이다. 사회적 지원, 특히 남편의 협력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치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낮거나 양육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좀 더 높임으로써 자녀 양육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에 의해 나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실험연구나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의 결과를 비교,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양육효능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연구하였으나, 양육이란 부부간의 공동의 일이므로 앞으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양육효능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형성에 사회적 지원, 특히 남편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양육효능감 신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 지원, 특히 남편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유우영 · 이숙 (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 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이기종 (1992). 일반 사용자들에게 구조방정식 모형은 과연 강력한 무기인가?: 잘못된 실례와 그에 대한 비평. 교육평가연구, 9(2), 43-58.
- 이명숙 (1994).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진현희 (1994).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와 정서적 아동학대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형성 ·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122-127.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ookman-Frazee, L. (2004). Using parent/clinician partnerships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6(4), 195-213.
- Brunelli, S. A., Wasserman, G. A., Rauh, V. A., Alvarado, L. E., & Caraballo, L. R. (1995). Mothers' reports of parental support: Associations with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Merrill-palmer Quarterly*, 41, 152-171.
- Bugental, D. B., Blue, J., & Cruzcosa, M. (1989).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outcomes :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32-539.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M.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Crockberg, S. B. (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lder, G., Eccles, J., Ardel,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 Goldberg, S. (1977). Social competence in infancy: A model of parent-infant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23, 163-177.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 (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Martin, A. J., & Sanders, M. R. (2003). Balancing work and family: a controlled evalu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s a work-site interventi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8(4), 161-169.
- Mash, E. J., & Johns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27.
- Shapiro, J. R., & Mangelsdorf, S. C. (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6), 621-641.
- Simons, R. L., Lorenz, F. O., Wu, C. I., & Conger, R. D. (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ion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68-381.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Unger, D. G., & Wandersman, L. P. (1988). The relation of family and partner support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9, 1056-1060.

The Causal Relations Model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Focusing o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ress

Hyung Sung Choe

Dept. of Child Care & Computer Education,
Hyecheon College

Ock 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ren'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416 Korean mothers living in Seoul Korea. Results showed that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temperament. On the other h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stress. Support from husband and social support from network of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related to five each subscale of parenting self-efficacy. Multiple regression indicated that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was the best predictor for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Children's temperament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for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Support from husband and support from network of social support were the best predictors for five each subscale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was a significant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stress and parenting self-efficacy. Also children's temperament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Keywords : social support, stress, temperament, parenting self-efficacy